

2005학년도 고려대학교 정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변형

※ 아래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문제에 답하십시오.

제시문 (가)

야구공은 큰 공인가 작은 공인가? 야구공은 탁구공에 비해서 크지만 축구공에 비해서는 작다. 강은 개울보다 크지만 바다보다는 작다. 야구공도 크다고 말할 수 있고, 강도 작다고 말할 수 있다. 개울만 보던 사람에게는 강이 커 보이지만, 바닷가에서 살던 사람에게 강은 작아 보일 것이다. 어른이 되어 어린 시절에 살던 동네에 갔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 작아 보여 깜짝 놀라기도 한다. 어릴 때는 그렇게 커 보이던 대문이 이제는 작아 보인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의 그림에서는 종종 사람의 얼굴이 몸보다 크게 그려진다. 아마도 어린이의 심리적 경험 속에서는 얼굴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신라의 고승 의상 대사는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었다”고 갈파했고,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도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고 노래했다. 티끌이 곧 우주요 모래가 곧 세상이라면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분은 무의미해진다. 오늘날 조그만 메모리칩 하나에 거대한 도서관을 담을 수도 있으니 그것이 큰 것인지 작은 것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치열한 극소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새로 개발된 메모리칩이 더 작아진 것인지 더 커진 것인지 말하기 곤란하다. 외형이 작아져도 용량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조그만 나비의 날갯짓이 바다 건너 거대한 허리케인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에 대해서 말한다. 또 원자보다 작은 극소의 세계와 우주와 같은 극대의 세계가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닌다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의상 대사와 블레이크가 노래한 바가 문학적 수사만은 아닐 것이다.

제시문 (나)

북녘 바다에 곤(鯨)이란 물고기가 있다. 그 몸집은 몇 천 리나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 물고기가 화(化)해서 새가 되는데, 이름 하여 봉(鵬)이라 한다. 봉의 몸집 또한 몇 천 리나 되는지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이놈이 한 번 화가 나서 날았다 하면 그 날개는 마치 하늘을 가린 구름처럼 모든 것을 뒤덮는다. 괴이한 이야기만 적어 놓은 『제해(齊諧)』라는 책에서는, “대봉(大鵬)이 남녘 바다로 날아가려면 물 위를 삼천리나 달려야 비로소 날아오르게 되고, 그런 뒤 다시 날개로 바람을 치면서 구만 리를 올라가서야 항로를 잡는다. 그러고는 그대로 육 개월을 날아 목적지인 남녘 바다에 도달한다.”고 말한다.

몸집이 크면 그를 받아들일 공간도 커야 하고 정신이 위로 비상하려면 그 경지 또한 높아야 한다. 바람의 공간이 넓지 않으면 큰 새가 날 수 없다. 대봉이 바람을 치며 구만 리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도 그래야만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아무런 장애 없이 남녘 바다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치를 모르는 매미와 새끼 비둘기가 비웃으며 말하기를, “나는 뽕나무 그늘에서도 얼마든지 힘껏 날 수 있고 잠깐 사이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구만 리나 날아올라서 남쪽으로 가는 것일까? 불과 두어 길 되는 공간에서도 뛰놀 수 있고 쑥대밭 사이에서도 자유로이 날 수 있으니, 이 또한 최대의 소요(逍遙)가 아닌가? 어째서 대봉처럼 날아야만 제일이란 말인가?”라고 한다. 작은 지혜(小知)는 큰 지혜(大知)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시간(小年)은 긴 시간(大年)에 미치지 못한다. 하루살이가 밤과 새벽을 알 리 없고 여름벌레가 눈과 얼음을 알 리 없는 것이다. 이것이 큼(大)과 작음(小)의 차이이다. 새끼 비둘기가 어찌 대봉의 뜻을 알겠는가?

제시문 (다)

우리가 가진 근본 욕구들 중에는 도덕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러나 큰 조직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불가피하게 억압받고, 조직의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요받는다. 그 규칙은 인간에 의해 고안되었지만 인간 자체는 아니다. 아무리 세심하게 만들어졌어도 거기에는 ‘사람의 손길(human touch)’과 같은 유연성이 없다. 조직이 크면 클수록 조직의 구성원은 도덕적 존재로서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게 된다. “미안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이걸 제가 받은 지시 사항입니다.” 이처럼 큰 조직들은 아주 불량하고 부도덕하게, 또는 아주 어리석고 비인간적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는 그 구성원들이 본래 그래서가 아니라 그들이 조직의 크기에서 오는 하중을 받기 때문이다.

큰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지만 이런 비판은 마치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배출한다고 해서 운전자를 나무라는 것과 같다. 천사라도 공기를 더럽히지 않고 차를 운전할 수야 없지 않겠는가? 결국 잘못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있다기보다는 조직의 크기에 있는 것이다. 개인들로 하여금 도덕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가진 사회는 부도덕하다. 조직이 지나치게 커지면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거대주의에 의한 합리화’에 중독된 현대인들은 너무 커진 규모 속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문제 1〉 ‘규모의 의미’ 라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 (나), (다)를 비교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제시문 (가), (나), (다)는 사물의 크기, 조직의 크기 및 그 크기의 상대성 등을 언급하며 공통된 주제로 규모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규모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 정확한 실체가 없는 것이라 주장하는 (가)와 달리, (나)와 (다)는 규모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규모에 대한 각각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 규모란 상대적인 것이다. 인간은 똑 같은 대상을 인지하더라도 자신의 심리적 경험과 환경에 따라 그 규모를 다르게 인식한다. 또한 (가)에서는 반도체의 예를 통해 그 물리적 크기가 작아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규모가 작다고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역설적 비유를 통해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 결국 극대(極大)와 극소(極小)의 본질은 같은 것이 되며, 절대적인 규모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규모의 크기에 따른 가치 판단 역시 불가능하다.

한편 (나)와 (다)는 (가)와 달리 규모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각각 ‘큰 것’과 ‘작은 것’ 을 예찬하며 반대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나)에서 큰 것은 작은 것에 비해 우위를 갖는다. 작은 것들은 마치 ‘우물 안 개구리’ 처럼 자신이 처해 있는 주변의 환경을 세상의 전부로 착각한다. 이들은 보다 큰 세상을 관통하는 이치인 ‘큰 뜻’ 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반면 ‘대붕’ 과 같이 큰 것들은 그에 상응하여 다다라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가치 또한 높아진다. 이는 반드시 물질적 규모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큰 규모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반면 (다)에서 큰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인간의 조직이 거대해질수록 인간이 만든 규칙은 오히려 인간을 속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와중에서 인간은 유연성을 잃어간다. 또한 거대한 조직의 그늘에 가려 조직의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부도덕한 일에 불감증을 겪게 된다. 또한, 거대한 조직 외부에서는 이러한 조직의 부조리를 지적할 수 있지만, 거대한 조직 안에서는 조직의 힘에 억눌려 이를 개선할 수 없으며, 조직에 의해 부조리를 저지르는 이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없다. 즉, 큰 조직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규모가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것이다. (1,066자)